

## 【 주간 이슈 】

# 손해보험 종목별 성장률과 손해율 증가율의 관계 검토

최영목 부연구위원

-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최근 수년간 장기손해보험에서 매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수익성 측면에서 부작용 발생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손해보험회사 대부분이 최근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에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한 반면 장기손해보험에서 매년 평균 15%이상 성장
  - 특정 종목의 높은 성장세가 부적정한 가격책정이나 언더라이팅을 통한 것이라면 손해율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의 보험리스크 확대를 초래
  - 또한 성장세가 지나치게 높은 보험종목은 불완전판매의 가능성도 높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
- 종목별 성장률과 손해율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성장률이 높을수록 위험손해율 증가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적정한 가격책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미국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우 모든 보험종목에서 성장률이 높을수록 오히려 손해율 증가율이 감소하여 수익성 측면의 문제점은 크지 않은 상황
  -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높을수록 손해율 증가율이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성장률이 높을수록 위험손해율 증가율이 상승
- 따라서 손해보험회사들은 장기손해보험에서 담보별 언더라이팅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감독당국은 지나치게 높은 성장을 지속하는 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손해보험에서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과 같이 성장률과 함께 위험손해율 증가율도 높은 회사는 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한 가격책정 및 담보별 언더라이팅 개선 노력이 필요
  - 감독당국은 성장률과 손해율 증가율이 높은 종목의 경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종목별 불완전판매율 공시 강화 유도가 필요

## 1. 서론

- 손해보험회사들은 장기손해보험 판매에 집중하면서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손해보험의 판매비중이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판매비중을 초과하기에 이르렀음.
  - 장기손해보험의 실손의료보험상품은 생명보험의 정액형보험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높아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
  - 더욱이 손해보험회사들은 방카슈랑스를 통해 장기저축성보험과 장기통합형보험을 판매하면서 성장세를 확대
  - 이에 따라 장기손해보험 판매비중이 손해보험 고유의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판매비중을 초과
  
- 그런데, 과도한 성장은 보험리스크 확대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손해보험 종목별 성장을 수익성 측면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현재 시점에 보험료를 거수하고 미래 시점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의 금증이나 계속보험료의 금감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가격책정 및 언더라이팅이 가능
  - 성장률이 소비자수요를 반영한 수준이라면 시장점유율과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성장률이 부적정한 보험가격책정과 무리한 언더라이팅을 통한 것이라면 손해율이 증가하고 불완전판매율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 발생
  - 따라서 보험종목의 성장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보험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수익성 측면에서 성장률의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과도한 성장으로 인해 파산한 손해보험회사들이 많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률을 조기경보시스템에서 리스크 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주요 파산원인 중 부적정한 가격책정으로 인한 준비금 부족(37.2%)과 과도한 성장(17.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sup>1)</sup>
    - A.M. Best의 부사장은 보험회사 CEO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에서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20%를 상회할 경우 파산사례가 많았음을 지적<sup>2)</sup>

1) A.M. Best, "A.M. Best's Insolvency Study-U.S. Property/Casualty Insurance, 1969 to 2002",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Receivers, 2004.

2) Barth Michael M. and David L. Eckl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Growth on Short-Term Changes in Loss Ratio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76, 2009, pp. 867-885.

- 미국보험감독자협회(NAIC)의 보험감독정보시스템(IRIS)과 재무분석감독시스템(FAST) 모두 성장률을 조기경보지표 중 하나로 활용
- 이에 본고는 손해보험 종목별로 성장률과 손해율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종목별의 성장률 분포 및 특징을 파악하고, 종목별 성장률과 손해율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수익성(사차익) 측면에서 성장률을 평가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전략과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

## 2. 손해보험 종목별 성장률 추이 및 특징

- 손해보험 종목 중 장기손해보험은 최근 매년 평균 1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FY2008에는 60%를 상회하여 주력상품으로 자리매김하였음.
  - 손해보험회사(일반손해보험 10개사)의 장기손해보험은 평균 성장률이 매년 15%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FY2008에는 판매비중이 60%를 기록
  - 반면, 손해보험회사의 고유 상품인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성장률은 장기손해보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자동차보험의 판매비중은 FY2005에 35.6%에서 FY2008에는 28.8%로 하락

<표 1> 손해보험 종목별 성장률 및 판매비중

(단위: %)

회계연도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		전체	
	성장률	비중	성장률	비중	성장률	비중	성장률	비중
FY2005	1.9	35.6	8.5	12.8	15.7	51.6	9.5	100.0
FY2006	7.3	33.4	8.6	12.1	21.0	54.6	14.6	100.0
FY2007	9.0	31.8	5.5	11.1	19.9	57.1	14.5	100.0
FY2008	0.5	28.8	11.4	11.2	16.3	60.0	10.7	100.0

주 : 일반손해보험 10개사를 대상으로 하였음.

□ 분석기간 동안 모든 손해보험회사가 장기손해보험 중심의 상품전략을 지속함에 따라 장기손해보험 성장률이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 성장률보다 높은 특징을 보임.

- 최근 4년 동안 장기손해보험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회사는 48.6%를 기록하였고 가장 낮은 회사도 비교적 높은 12.4%를 기록하였으며, 10개 손해보험 회사 모두 장기손해보험이 여타 종목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시현
- 특히, 일반손해보험 10개사 가운데 FY2005부터 FY2008까지 매년 장기손해보험 성장률이 20%를 상회하는 회사가 다수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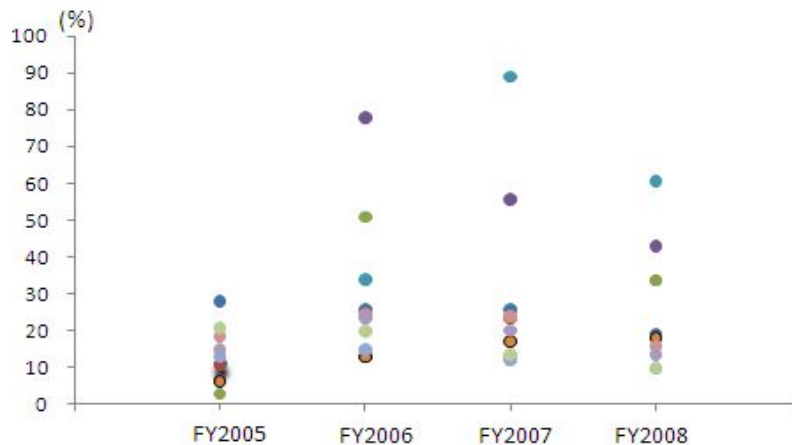
<표 2> 손해보험회사의 종목별 평균 성장률

(단위: %)

회사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
A	-0.3	4.0	48.6
B	0.6	18.2	45.7
C	12.3	13.5	27.7
D	2.6	4.5	24.7
E	9.2	9.3	20.7
F	-8.5	3.5	20.2
G	6.7	11.8	18.0
H	3.5	7.4	16.0
I	3.2	6.2	13.4
J	5.2	9.2	12.4

- 주: 1) 일반손해보험 10개사를 대상으로 하였음.  
2) 분석기간(FY2005~FY2008)의 연도별 성장률을 평균한 값임.

<그림 1> 장기손해보험의 회사별 성장률 분포



주 : 일반손해보험 10개사를 대상으로 하였음.

### 3. 종목별 성장률과 손해율 증가율의 관계

□ 최근 들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자동차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FY2006에 81.2%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70% 초반으로 하락
- 일반손해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으나 FY2008 들어 80.7%로 급등
- 장기손해보험의 평균 위험손해율은 지속적으로 70% 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FY2008에는 78.3%까지 상승

<표 3>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 및 (위험)손해율 증가율

(단위: %)

회계연도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	
	손해율	손해율증가율	손해율	손해율증가율	손해율	손해율증가율
FY2006	81.2	3.8	46.9	11.1	71.3	-2.7
FY2007	74.1	-8.7	56.3	20.0	70.7	-0.8
FY2008	71.0	-4.2	80.7	43.3	78.3	10.7

주: 1) 일반손해보험 10개사를 대상으로 연도별로 회사별 손해율을 평균하였음.  
2) 장기손해보험은 일반계정의 무배당 상품의 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위험보험료)임.

□ 미국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우 모든 종목에서 평균적으로 성장률이 높을수록 손해율 증가율이 감소하여 높은 성장에 따른 문제점이 크지 않은 상황임.

- Barth and Eckles(2009)는 1998~2005년 동안 NAIC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국 손해보험회사들의 종목별 성장률과 손해율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추정
- 그 결과 모든 종목에서 성장률과 손해율 증가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 즉 성장률이 높을수록 손해율 증가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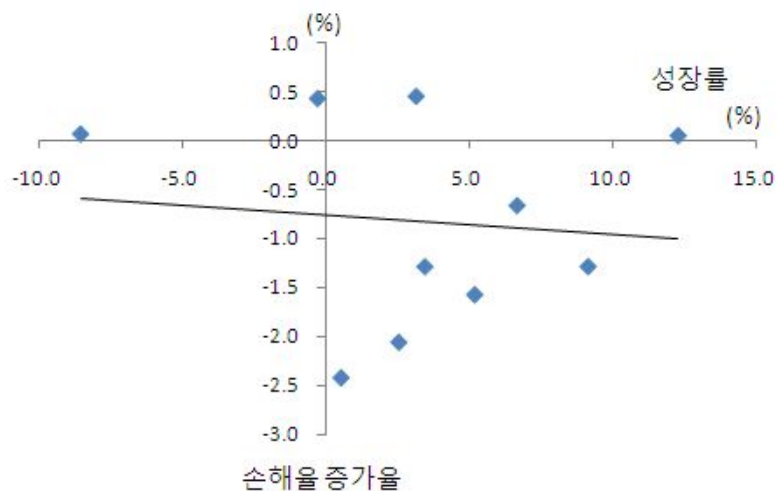
<표 4> 미국 손해보험 사례: 성장률과 손해율증가율의 상관관계

보험종목	상관관계
가정 및 농장 종합	-0.124
가정용 자동차 배상책임	-0.084
상업용 자동차	-0.152
다중위험배상	-0.104
의료과실-손해발생기준	-0.389
일반책임-손해발생기준	-0.304
생산물책임-손해발생기준	-0.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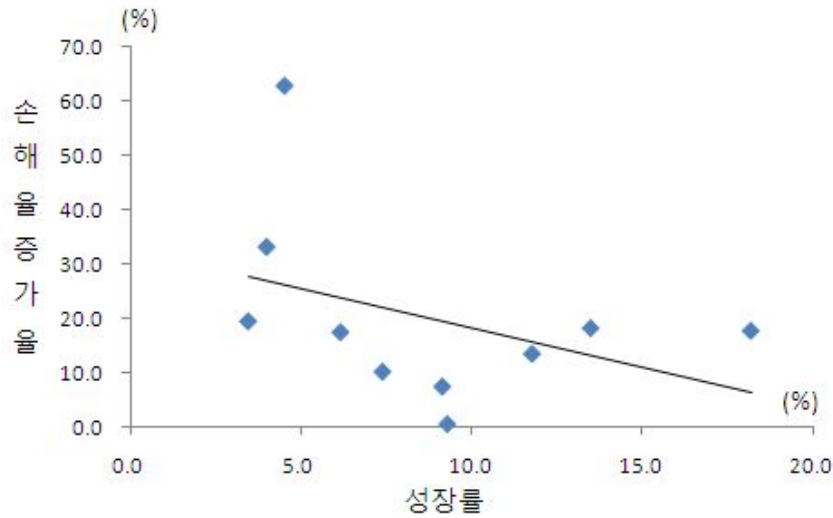
자료: Barth and Eckles (2009)

- 국내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은 성장률이 높을수록 손해율 증가율이 감소하지만, 장기손해보험은 성장률이 높을수록 위험손해율 증가율이 상승하여 부적정한 가격책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FY2005~FY2008 동안 회사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보험종목의 연도별 성장률과 손해율 증가율을 산출한 후 이를 평균하여 분산형 그래프를 작성
  -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성장률과 손해율 증가율 사이에는 부(-)의 관계가 존재
  - 그러나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달리 성장률과 위험손해율 증가율 사이에 정(+)의 관계가 존재하여 성장률이 높을 경우 사차익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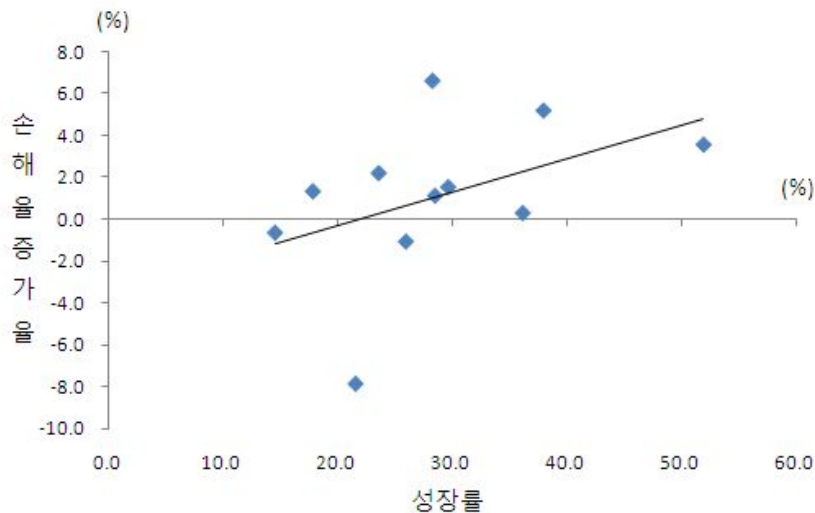
<그림 2> 자동차보험의 성장률과 손해율 증가율의 관계



<그림 3> 일반손해보험의 성장률과 손해율 증가율의 관계



<그림 4> 장기손해보험의 성장률과 위험손해율 증가율의 관계



주: 1) 손해율은 위험손해율(=발생손해율/위험보험료)을 사용하였음.  
2) 일반계정의 무배당 상품을 대상으로 하였음.

□ 모형을 통해 종목별 성장률과 손해율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장기손해보험에서 성장률이 높을수록 위험손해율 증가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FY2006~FY2008년 동안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종목별 성장률과 손해율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추정
- 그 결과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성장률과 손해율 증가율 사이에 부(-)의 관계, 즉 성장률이 높을수록 손해율 증가율이 감소

- 반면,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성장률과 위험손해율 증가율 사이에 정(+)의 관계, 즉 성장률이 높을수록 위험손해율 증가율이 증가

<표 5> 종목별 성장률과 손해율증가율의 상관관계

보험종목	상관관계
자동차보험	-0.126
일반손해보험	-0.567
장기손해보험	0.115

주: 설명변수는 성장률, 종속변수는 손해율증가율인 패널회귀모형을 추정한 회귀계수임.

#### 4. 요약 및 시사점

-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지난 수년간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임.
  - 대형사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성장률이 높은 수준이지만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
  -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함에 따라 손해보험 고유의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에서는 성장 정체
- 그런데 장기손해보험의 매출성장률이 높은 회사가 위험손해율 증가율이 높아 부적정한 가격책정이나 무리한 언더라이팅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미국 손해보험회사들은 모든 종목에서 매출성장률이 높을수록 손해율 증가율이 낮아 부적정한 가격책정이나 언더라이팅에 따른 문제가 크지 않은 상황
  - 반면,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종목에서 매출성장률이 높을수록 위험손해율 증가율이 높아 향후 부적정한 가격책정이나 무리한 언더라이팅으로 인한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따라서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장기손해보험 판매에 있어 성장 위주의 전략에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한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과 같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는 상품에 대해 통계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리스크를 파악
  - 이를 바탕으로 가격책정, 보장기간설정 등 상품개발 단계에서부터 리스크를 고려하고 보험사고 정보를 충분히 활용한 사후관리가 필요
- 또한 감독당국에서는 과도한 성장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종목별 리스크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율 공시 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회사별 리스크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특정 보험종목이 지나치게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경우에도 리스크 점검을 통해서 건전한 성장을 유도
  - 또한 경쟁이 격화되어 성장률이 높은 종목에서는 불완전판매율의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불완전판매율 공시 강화도 필요 KiRi.